

2023. 5.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윤총식	2133-4260
통계조사팀장	조수정	2133-4277
담 당 자	최성용	2133-4365
관련 누리집 : data.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0매

## 서울시 '2022서울서베이' 결과 발표...통계로 본 서울시민·외국인·엄마아빠 현주소

- 「2022서울서베이」 활용해 2022년 서울시민 일상 집중분석...정책 기초자료 활용
- '22년 서울시민의 전년대비 오프라인 문화·아외활동↑...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회복 중
-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은 '트렌디한 문화 추구 도시'... 절반 이상은 서울 거주 추천(57.1%)
-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은 15%p(20년 53.1%→22년 38.1%)감소, 서울시민보다 높은 행복지수 보여
- 서울 엄마아빠, 미혼·무자녀 부부보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지만 행복지수↑외로움↓

서울시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외국인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22서울서베이 개요 : 붙임1 참조

- 서울 거주 외국인: 서울에서 91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 서울의 엄마 아빠: 만 0~6세 자녀를 둔 엄마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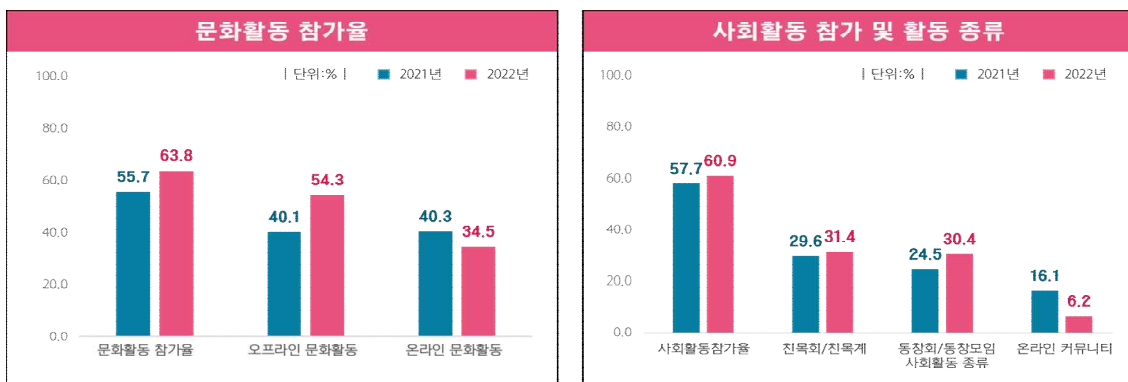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각종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022 서울시민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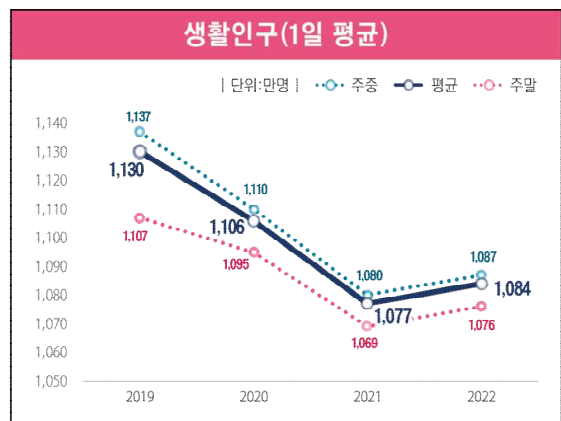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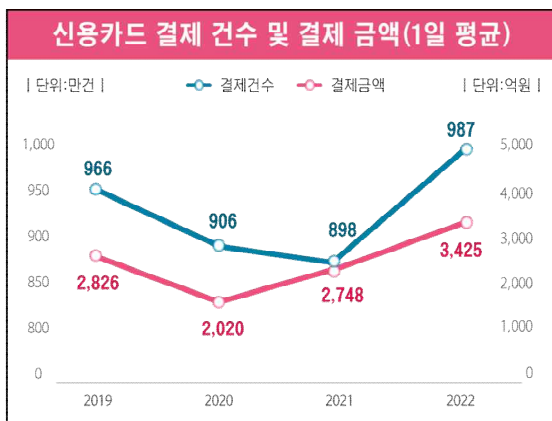
### <서울 시민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중>

- 2022년 서울 시민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전년대비 오프라인 문화활동(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람회 등), 사회활동(친목회, 동호회, 동창모임 등)이 크게 늘어났다. 여가활동은 주중·주말에 상관없이 야외활동이 대폭 상승한 반면 온라인 활동은 대폭 감소했다.
  - 문화활동 참가율은 63.8%로 전년에 비해 8.1%p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면 중심의 문화 활동은 14.2%p(40.1% → 54.3%) 증가했지만, 비대면 중심 문화 활동은 5.8%p(40.3% → 34.5%) 감소하였다.
  - 사회활동도 전년 대비 3.2%p(57.7% → 60.9%)증가하였다. 친목회(29.6%→31.4%), 동창회(24.5%→30.4%) 등 대면 중심의 모임은 증가하였지만, 비대면 중심의 모임(온라인 커뮤니티, 16.1%→6.2%)은 감소하였다.
  - 또한, 여가 활동은 전년과 대비하여 주말·주중 모두 여행·야외 나들이가 증가한(주중: 7.8%→35.1%, 주말: 28.5%→34.8%) 반면,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9.1%→6.1%), 주말에는 영상시청(49.4%→37.3%)과 같은 실내 여가 활동이 감소하였다.



[문화활동, 사회활동 참가율 변화]

- 아울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신용카드, 생활인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시점(202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시기 동안 위축되었던 신용카드 결제건수와 매출액(일평균)은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수준보다 높아졌다.
- 서울의 생활인구(일평균)는 코로나19 유행과 동시에 감소하여 2021년 최저점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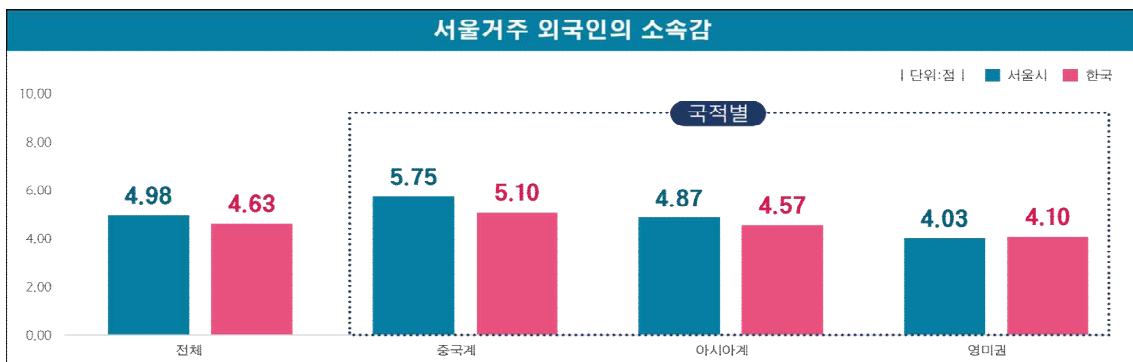
※ 서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A사)의 평균 결제 건수와 금액

### [신용카드 매출과 생활인구 변화]

## [서울 속 외국인의 일상]

### <나는 서울 시민,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어>

-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산다’보다는 ‘서울에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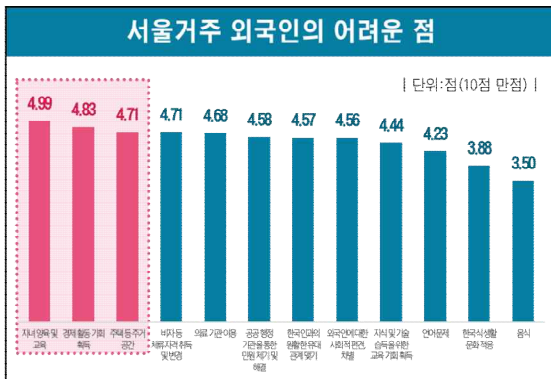


### [서울거주 외국인의 소속감]

□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은 38.1%로 2020년 53.1%에 비해 15%p나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일터(27.9%), 상점/음식점/은행 등 (19.7%),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7.4%), 공공기관 (16.6%) 등의 순이었다.
- 차별 원인은 출신 국가(46.8%), 한국어 능력(40.5%), 외모(피부 색)(35.8%) 등의 순이었다.

□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기회 획득 ▲주택 등 주거 공간 확보 순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며 겪는 어려움은 연령대별로 달랐지만, 서울 시민 각 연령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류	전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순위	자녀양육 및 교육 (4.99점)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4.93점)	자녀양육 및 교육 (5.33점)	경제활동기회 획득 (4.81점)
2순위	경제활동기회 획득 (4.83점)	경제활동기회 획득 (4.91점)	의료기관 이용 (4.85점)	주택 등 주거공간 (4.53점)
3순위	주택 등 주거공간 (4.71점)	한국인과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4.65점)	주택 등 주거공간 (4.79점)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민원해결 (4.2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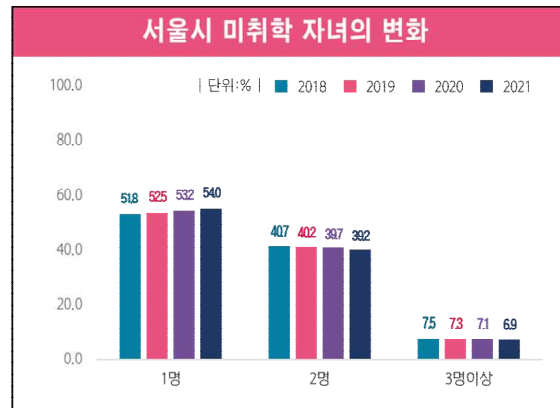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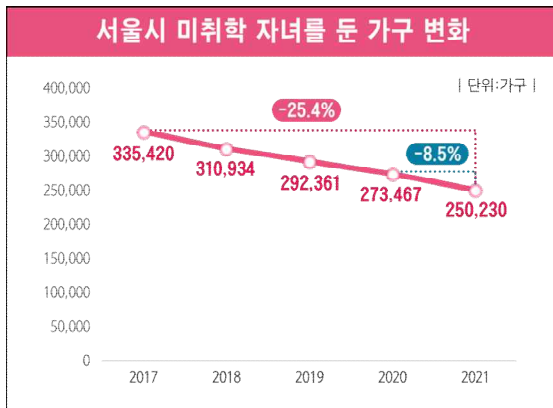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어려운 점]

□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 시민보다 더 행복하였다. 서울 거주 외국이 절반 이상이 향후 서울 거주를 희망(56.3%)하며, 서울 거주를 추천 (57.1%)하고 싶다고 했다.

- 행복지수 : 서울 거주 외국인(7.07점), 서울 시민(6.7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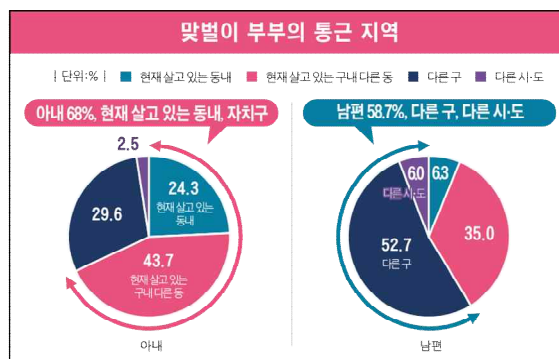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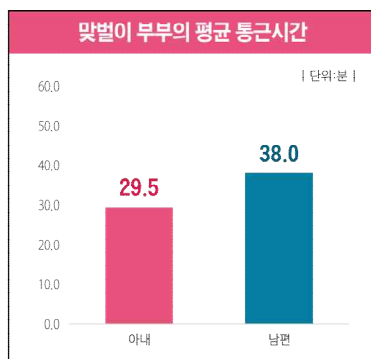
##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

- 2021년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0~6세)가 있는 가구는 약 25만가구로 2017년 약 33.5만 가구에 비해 8.5만 가구(-25.4%)가 감소하였다. 매년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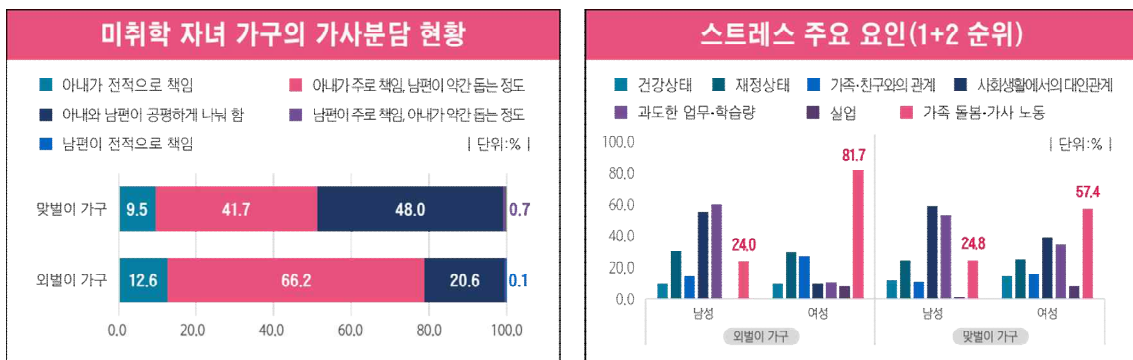
## <서울 엄마 아빠의 돌봄·양육 환경>

- 서울에서 자녀 양육은 여전히 아내의 부담이 높은 편이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58.7%는 다른구 또는 다른 시도로 통근하며,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동 또는 자치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68.0%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통근 시간은 아내 29.5분, 남편 38.0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통근시간과 통근 지역〕

-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가사 분담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가 (78.8%), 맞벌이 가구는 아내가 (51.2%)로 주로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48.0%는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 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엄마·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 1순위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 엄마는 가족돌봄·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였다. 외벌이 가구 엄마의 가족돌봄·가사노동 스트레스는 맞벌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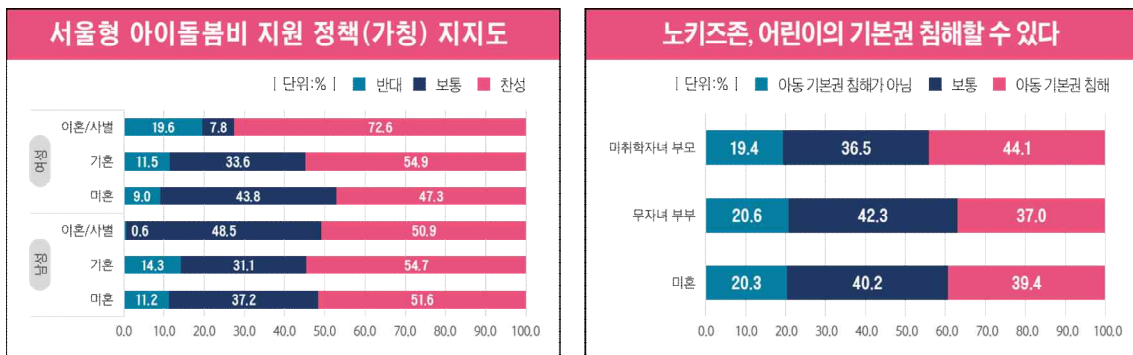
[미취학 자녀 가구의 가사 분담과 스트레스 주요 요인]

- 엄마 아빠의 직장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 1순위는 어린이집·유치원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음으로 자녀 돌봄 방식은 부모님, 친인척 순이었다.
- 보육시설 만족도는 ▶직장(4.44점), ▶국공립(3.81점), ▶민간/개인·가정 어린이집(3.80점) 순이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가까이에서 자녀를 살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

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0.1%(1,831개<sup>1)</sup>)가 운영되어 서울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년,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인식>

□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가칭)<sup>2)</sup>”에 대해서는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 없이 절반 이상이 지지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47.3%, 51.6% 찬성하였다. 노키즈존<sup>3)</sup> 설치에 대해서는 자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40%이상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키즈존이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율이 “기본권 침해가 아님”보다 2배 가량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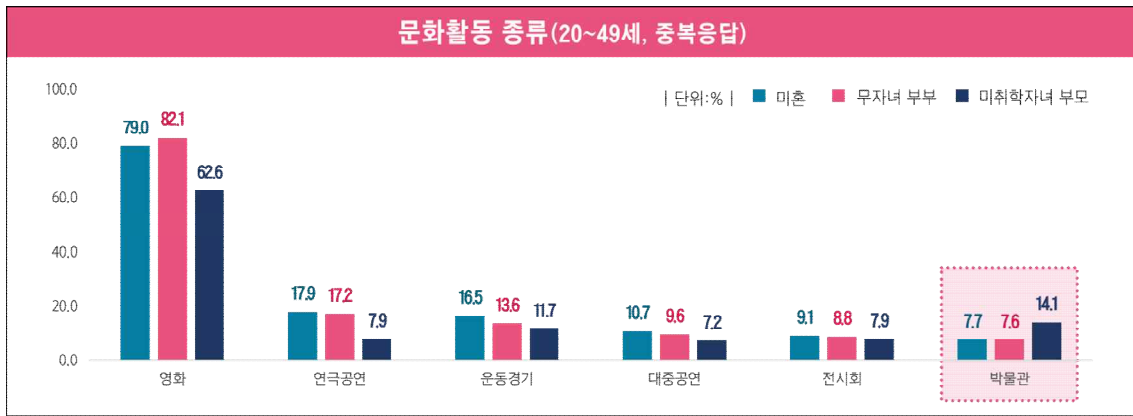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가칭) 지지도 및 노키즈 존 설치에 대한 생각]

### <서울 엄마·아빠는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 미취학 자녀를 둔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2023.3.31. 기준)
-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가칭):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대상,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매월 30만원의 돌봄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
- 3) 노키즈 존: 식당 등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출입하지 못하는 것

서울 시민의 일반적인 문화 생활은 영화 보기이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경우에는 박물관 관람과 같이 교육적인 문화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있었다.



[서울 엄마·아빠의 문화활동 종류]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실내 활동 위주의 TV·영상시청(60.6%),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17.4%)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TV·영상시청,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이 많이 줄고, 여행·야외 나들이(25.2%), 운동(12.3%), 종교활동(12.0%)과 같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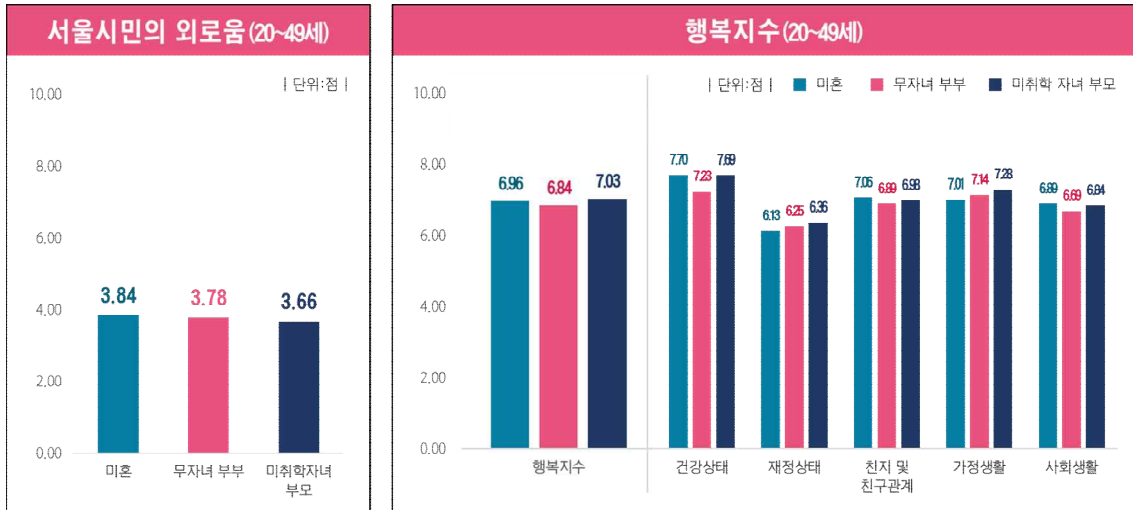
○ 2022년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5.90점), 무자녀 부부(5.74점), 미취학 자녀 부모(5.63점) 순이었다.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희망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운동(15.1%), 문화예술관람(13.9%)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여행·야외 나들이(43.6%), 운동(9.4%), 문화예술관람(8.9%)이었다.

주말·주중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관람이 포함되는 것은 현재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서울 엄마·아빠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엄마·아빠가 느끼는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 무자녀 부부보다 가장 낮았지만, 행복지수(건강, 재정, 친구 관계, 가정, 사회생활)는 가장 높고, 외로움은 가장 낮았다. 이는 아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제한된 문화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엄마·아빠의 행복지수와 외로움]

-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서울 엄마·아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고,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는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서울서베이 자료를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 삶이 존중 받고, 서울에 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2022 서울서베이」 조사 및 분석 결과는 5.30.(화)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개 요**

- 통계 명 : 서울특별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부승인통계 제201011호)
- 목 적 : 서울시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 서울거주 2만 가구(15세 이상 39,340명), 시민 5,000명. 외국인 2,500명
- 조사기간 : 2022년 9월 15일 ~ 10월 31일
- 조사방법
  - 가구, 시민조사, 지역사회조사 : 가구방문면접조사
  - 외국인조사 : 방문면접조사
- 표본추출
  - 가구 및 시민조사 : 층화집락추출법 (stratified cluster sampling)
  - 외국인조사 : 1차 추출-층화 단순임의 추출법(체류자격별)  
2차 추출- 층화 계통 추출법(국적별)  
분류지표: 체류기간, 성별, 연령
- 표본오차
  - 가구주 : 95% 신뢰수준,  $\pm 0.69\%p$
  - 가구원 : 95% 신뢰수준,  $\pm 0.49\%p$
  - 시 민 : 95% 신뢰수준,  $\pm 1.39\%p$
  - 외국인 : 95% 신뢰수준,  $\pm 1.96\%p$
-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

**보고서 등 자료 받는 방법**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 조사보고서 :
    - ▶ 열린데이터광장 ▶ 통계▶서울통계간행물▶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2023▶2022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 원자료(Micro data) :
    - ▶ 열린데이터광장 ▶ 검색창에 “도시정책지표조사” 검색